

SERMON 11 SEPTMEBER 2016

디모데전서 1:12-17, 누가복음 15:1-10

상실, 혼돈, 두려움, 공포. 익숙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충고도 없고, 어느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소용돌이치는 안개와, 어두움, 공허 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잃어 버린 것으로 인해 모든 중요한 연결점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 아주 소중했던 장소, 여러분의 삶을 변화 시켰던 행사들.

그 모든 것은 꽤 드라마틱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여기 에 있는 우리 모두는 상실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를 경험했으며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열쇠를 잃어 버리나요? 심지어 짧게 라도요. 불안의 최고조의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성분이시라면 핸드백과 지갑을 깊숙이 까지 파헤쳤을 것
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 내어서 잃어 버렸다고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발견하게 될 것 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의
남편의(Clive) 경우라면 계단을 오르내리며 여기 저기 다른 방을 찾아
다닐 것 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둘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무엇이었던
그것은 Clive 가 사용한 가방의 주머니에서 찾아내곤 했습니다.

“상실”은 아주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즐거리를 잃어 버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평온함을 잃어버리고 열을 내고, 기억력을 잃어 버리고,
냉정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며, 단지 그냥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잃어 버리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건강 그리고 힘,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했던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많은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의 독립심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도전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전은 계속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 가정, 나라, 그리고 소속감들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들을 잠시 다른 곳에 두고 왔다고 자주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그들이 가져다 준 삶의 의미와, 기쁨과, 동정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삶에 큰 구멍이 난듯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형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안정된 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이 깨어짐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자체를 상실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약한 부분에 까지 도달해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 나지 않은 것 같이 행동함으로 우리의 에너지와 활력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상실. 그것은 큰 공허함을 전달하는 감정과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복잡하고, 물건들이 너무 많고, 너무 혼돈되어서 상실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운전하는지, 어떤 종류의 집에 우리가 사는지에 큰 가치를 두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복지가 소비자의 소비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쓸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흐름에 참여해야 하는 압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아는 “물질”과 압박들에 의해서 압도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바쁨은 요구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기본적인 단순함을 잃어 버릴 때 우리는 영혼의 공급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는 외칩니다. 여기 지난주에 읽은 기도 중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여유와 단순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쉽게 기본적인 것을 잃는지 압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감정을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흐름에 맡기거나 제쳐둠으로 우리의 배려를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려와 연민을 잃어 버릴 때 우리 자신의 원동력을 잃어 버리게 되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어떤 변화 능력의 감정을 상실함으로 화가 납니다, 또는 우리가 고수하는 능력을 주위를 파괴 하는 방법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실과, 많은 화를 오늘 우리 주위로부터 받고 있나요?

바울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수요일 성경공부시간에 우리는 잔인하게 화를 내는 젊은 사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새로운 크리스찬 공동체에 대항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겁 먹게 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 남성과 여성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행해 지는 시나리오 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시고 그들을 계속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가족들은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큰 회당공동체가 있는 다마스쿠스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권력자의 위임을 받아서 그들을 쫓아가서, 벌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 났나요?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가 핍박하는, 그의 화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절실하게 예수가 죽고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살아서 임재하시는 그분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완전 새로운 다른 삶을 제안합니다. 다마스쿠스로 힘있게 들어가서 그의 권력을 크리스찬에게 휘두르는 상상에서부터 그는 잠시 동안 무능력하게 그의 시야를 잃으며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는 그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은 바울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환영으로 “사울형제”를 만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관해서 그의 서신에 기록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서신을 디모데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바울의 만남은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그의 삶과 설교에 중심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극적으로 반대하던 사울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 어떤 당면한 고통스러운 어려움, 위협, 채찍질 그리고 바울이 직접 감옥으로 가두던 자로서 이제는

자신이 감옥살이를 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어느 것도 그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그의 시간을 외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에게는 절대 잃어 버린 자가 아니기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들은 잃어버림에 대한 다른 강조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 여인은 그녀의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의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중하게 그녀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그 집안을 다 뒤져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무리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잃어 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목자는 열심히 찾습니다. 그는 그 잃어 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목자는 그 광야에 99 마리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능력 있는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소외자 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를 비난하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이 암시하는 것은 그들은 율법에 헌신하고 순수하게 살려고 시도 함으로 다른 사람과는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무엇을 잃어 버렸나요? 비유에, 결국 위험으로 그들 자신의 99 마리 양을 잃어 버립니다. 목자의 초점과 사랑은 잃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한 마리의 양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뒤쳐져 길을 잃은 이들에게 엄격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들 자신이 생각한 만큼 안전하지 않은 것을 몰랐던 그들도 길을 잃었습니다!

말, 압박, 감정, 삶의 모든 혼돈으로부터 모든 축적을 제거해 버리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의 단순함을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것을 차단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의 특별한 순간들,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이해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항상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아는 때 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읽은 말: “진정한 삶은 많은 상실과 재생의 여정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오직 그 경험의 방법을 점차적으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옵니다.”

여기에 예수님 비유들의 관점 만큼 동등하게 중요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두 비유다 마지막에는 잔치와 기쁨으로 축제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잃어 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갈망하시나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성만찬을 축하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상실한 것이
아니고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실했다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그리고 사랑의 수용과 소속감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잃어버림과 되찾음의 이해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명확한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교회 오르간 리스트이자 음악가였고, 오타고 대학에
영문과 교수로 은퇴하시기 전 찬송가를 작사하신 코린 깁슨(Colin
Gibson) 가사를 나누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는 코린 깁슨이

폐병으로 고통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한 그의 비서의 아들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적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에서 어떤 잃은 것도, 영원히 잃을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사랑이시고 세상을 영원히 이끌어 가실 그 사랑은 남아있습니다.

어떤 깃털도 너무 가볍지 않고, 어떤 머리카락도 너무 가늘지 않으며, 어떤 꽃도 하나님의 영광에 을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바다의 물방울도, 어떤 공기 속 먼지 까지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포함되고 적혀있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눈에 잃은 것은 없고 영원히 잃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며, 이 세상을 영원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 어떤 여정도 멀지 않고, 어떤 거리감도 대단하지 않고, 어떤 어두운 계곡도 너무 어둡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너무 초라하지 않고, 어떤 아이도 너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잃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그분에게는 영원히 잃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물며, 이 세상을 지탱하실 것 입니다.

어떤 사랑의 충동도, 어떤 돌봄의 기관들도, 어떤 삶의 순간도 그 자체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작도 늦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마침도 너무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합니다.

© Colin Gibson